

# 소장유물 소개

## 김의신 서첩 (金義信 書帖)



부산박물관 소장 김의신 서첩은 설봉(雪峰) 김의신(金義信, 1603~?)이 당나라 자서(子西)가 지은 <고연명(古硯銘)>을 쓴 것으로 1643년 계미사행 또는 1655년 을미사행때 조선통신사 일행의 사자관(寫字官)으로 일본에 갔다가 남긴 작품이다. 조선 중기 유행한 석봉체와 같이 도학자(道學者)들의 성정에 부합하는 엄정 단아한 글씨의 골격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봇놀림이 활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획의 음양대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당시 일본과는 다른 조선 글씨의 전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조선중기서예전>과 <설봉 한호전>에 소개된 설봉의 '각체필법'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설봉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대표적인 필작에 속한다.

김의신은 정로위(定虜衛) 김응선(金應善)의 자제로 1637년 별시의 병과에 급제하였으며, 사자관이었던 한석봉의 석봉체를 이은 대표 인물중 한 사람이다. 글씨를 잘 써서 중부참봉(中部參奉)에 제수 되었으며, 필명에 힘입어 1643년에는 정사 윤순지 · 부사 조경 · 종사관 신우 등과 함께, 1655년에는 정사 조형 · 부사 유창 · 종사관 남용익과 함께 두 번에 걸쳐 통신사의 사자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의 글씨는 효고현(兵庫県) 고베(神戸)의 선창사(禪昌寺) 현판이나 야마구치현(山口県) 가미노세키정(上関町) 강국사(江國寺) 현판 등 일본의 여러 지역에 남아 있으며, 국내에는 최명길(崔鳴吉)의 아버지 최기남 신도비(崔起南 神道碑) 등에 있다. 김의신 서첩은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한일양국이 신청한 관련 자료 111건 333점에 포함되어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강석범 |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The Busan Museum News | 2017 겨울호 + Vol. 32

# 부산박물관소식

## 국제전시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치바이스(齊白石)

## 국내전시

2017년 하반기 전시  
2018년 상반기 전시

## 유물관리

2017년 하반기 유물 기증

## 매장문화재 조사

배산성지 1차 문화재 발굴조사  
노포동고분군 일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 교육 · 행사

## 교류

## 동정

## 2018년 상반기 행사일정

## 소장유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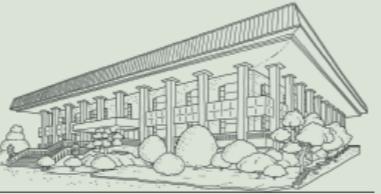


ISSN 2586-5064



## 부산관 재개관 기념 특별기획전 꿈과 익살의 민화

전시기간 | 2017. 7. 11.(화) ~ 8. 6.(일)  
전시장소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부산관 재개관을 기념하여 한국미술협회 민화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2017년 7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27일간 특별기획전『꿈과 익살의 민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부산박물관과 한국미술협회 민화분과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살피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민화는 조선시대 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회화 장르 중 하나로서 그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화가들이 일반 대중을 위해 그린 그림으로 넓게 정의될 수 있다. 민화의 대표적 특질인 ‘해학성(諧譎性)’과 ‘파격미(破格美)’는 현대 회화 예술에서 지향하는 미(美)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기에 오늘날에도 민화는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민화의 역사성과 대중성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에 제작된 주제별 대표 민화들과 부산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현대 민화 작가들의 선별된 작품을 함께 전시하였다.

임설희 |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



1. 2017년 특별기획전 전시실 외부 전경  
2,3. 2017년 특별기획전 전시실 내부 전경



1  
2  
3

## 부산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작품전 혼(魂)으로 이어온 맥(脈)

전시기간 | 2017. 12. 22.(금) ~ 2018. 1. 21.(일)  
전시장소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혼(魂)으로 이어온 맥(脈)’ 특별전시회가 2017년 12월 22일(금)부터 2018년 1월 21일(일)까지 부산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부산 장인들과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널리 일깨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직접 제작한 범종, 사기, 불화, 전통 신, 선화, 목조각, 전통 연, 전각,

하단 뜻배가 소개되었다.  
전시와 더불어 2018년 1월 16일(화) ~ 1월 18일(목) 오후 2시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하는 문화재 만들기〉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전통 연 만들기, 한지로 아기신 만들기, 물레 체험 등 전통 공예품을 무형문화재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은 겨울방학, 박물관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상수 |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



1



2



3



4

1. 청원스님 / 관음보살입상(85×85×245cm)
2. 김영길 / 백자달항아리(높이 42cm)
3. 박한종 / 성덕대왕신종 원음종(110×70×155cm)
4. 인해표 / 아기신태사례(16cm)

부산

## 제 2회 신수유물전

전시기간 2017. 9. 5.(화) ~ 10. 15.(일)  
전시장소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증실



2017년도 제 2회 신수유물전에는 '2017년 공개구입 도자전'을 소개함으로써 상반기 유물 공개구입 사업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7년 상반기 부산유물 공개구입 사업으로 27점의 도자기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고려 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시기별·유형별 대표적인 8점의 도자 유물을 엄선하여 전시하였다.

이번 신수유물전에서 소개되는 도자기는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



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와 유형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고려시대 회청자를 비롯하여 후기에 가장 유행한 상감청자, 고려의 상감 양식을 계승한 조선전기의 분청사기, 코발트 안료의 도입으로 조선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된 청화 백자 등이 선보였다. 도자기의 형태는 마상배·과형병·

매병·주병·푼주·호 등이며,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 또한 운학·문자·국화·당초·매화·오동·봉황·잉어·용 등 다양하다.

유현 |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 제 3회 신수유물전

전시기간 2017. 10. 17.(화) ~ 2018. 1. 7.(일)  
전시장소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2017년도 제 3회 신수유물전에는 '귀향'이라는 주제로 조선후기 부산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미공개 조선 산수화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은 대일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문화 상품도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 통신사 참여 화원 등을 통해 일본으로 회화 작품이 전달되기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전달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산수화들은 19세기 무렵 동래 왜관에서 판매된 대외 교역용 작품이다. 주로 동래 지역



에서 활동한 화가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전통적인 조선의 화풍을 취하면서 일본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화가들은 대개 본명이 아닌 필명 등을 사용하여 신분이나 직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필명 앞에 '조선'이라는 표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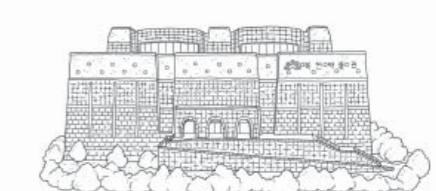
하여 작품의 제작처가 조선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시된 작가는 '조선 만취', '조선 옥천', '조선 초산', '조선 송암'의 작품인데 이 중 송암은 동래에서 무임을 역임한 이시눌로 알려져 있다.

유현 |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복천

## 2017년 복천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영강에서 꽂핀 부산문화

전시기간 2017. 9. 26.(화) ~ 11. 26.(일)  
전시장소 복천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이번 전시는 부산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수천년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수영강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기획되었다.

수영강은 오랜 세월 부산을 관통하여 흘러온 부산 문화의 원초적인 공간이자 무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영강변에 투영된 부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여기서 전개되었던 부산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립 김해박물관 및 동아대학교박물관등 11개 기관에서 400여점의 유물을 대여하여 최근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I. 수영

강변 부산의 중심〉, 〈II. 변진독로국의 성립〉, 〈III. 거칠산국의 성쇠〉, 〈IV. 동래군과 갑화양곡현〉, 〈V. 동래현과 동래정씨〉, 〈VI. 동래부와 동래읍성〉 6개장으로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 속에 멀어져 있었던 부산 수영강변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을 되돌아보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영강의 정체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윤 | 복천박물관

부산

## 제 3회 신수유물전

전시기간 2017. 10. 17.(화) ~ 2018. 1. 7.(일)  
전시장소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2017년도 제 3회 신수유물전에는 '귀향'이라는 주제로 조선후기 부산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미공개 조선 산수화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은 대일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문화 상품도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 통신사 참여 화원 등을 통해 일본으로 회화 작품이 전달되기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전달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산수화들은 19세기 무렵 동래 왜관에서 판매된 대외 교역용 작품이다. 주로 동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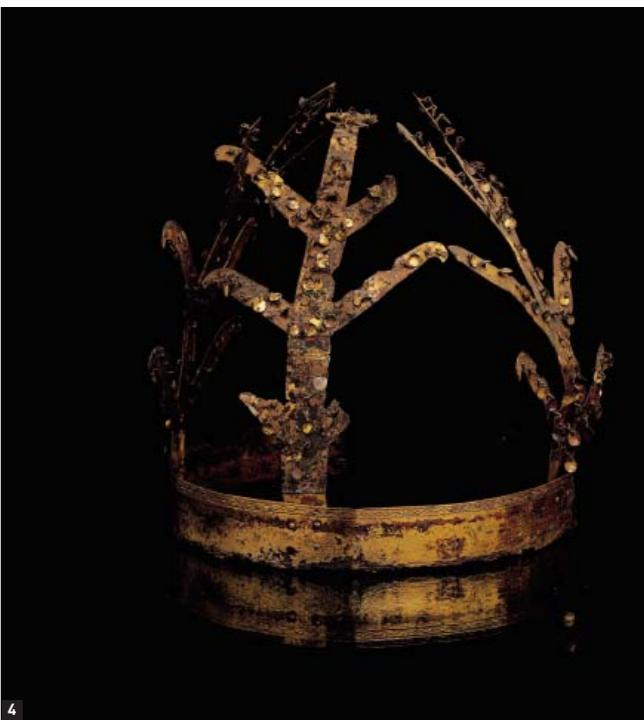
에서 활동한 화가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전통적인 조선의 화풍을 취하면서 일본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화가들은 대개 본명이 아닌 필명 등을 사용하여 신분이나 직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필명 앞에 '조선'이라는 표시를

하여 작품의 제작처가 조선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시된 작가는 '조선 만취', '조선 옥천', '조선 초산', '조선 송암'의 작품인데 이 중 송암은 동래에서 무임을 역임한 이시눌로 알려져 있다.

유현 |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1. 연화문 수막새(운천동차발골유적)
2.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복천동 7호분)
3. 장경호와 통형기대(복천동 10,11호분)
4. 금동관(복천동 11호분)



2017년 부산근대역사관 특별기획전

## 그릇으로 보는 부산의 근현대

전시기간 2017. 7. 4.(화) ~ 2017. 8. 20.(일)

전시장소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부산근대역사관은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2017년 특별기획전 「그릇으로 보는 부산의 근현대」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개항 이전 한일(韓日) 간의 도자기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통도사설송당연조부도사리그릇」, 개항 전후 일본에서 수입된 다양한 공장제 사기그릇과 일제강점기 최대 산업도자기 생산지였던 부산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변관식 필 〈진양풍경〉 접시와 윤재 이규옥 필 〈궁녀〉



접시 등 한국전쟁기 대한도기에서 피란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핸드페인팅 도자 접시가 선보였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피란수도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근현대 도자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0 여점의 유물들이 출품되어, 한때 국내

최대 산업도자기 생산지였던 부산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이남식 | 부산근대역사관



2017년 부산근대역사관 특별사진전

## 부산, 관광을 시작하다

전시기간 2017. 11. 7.(화) ~ 2017. 12. 17.(일)

전시장소 부산근대역사관 1층 로비

부산근대역사관은 부산 근대시기 주요 관광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특별 사진전 「부산, 관광을 시작하다」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진전은 부산의 관광지를 〈공원〉, 〈해수욕장〉, 〈온천〉으로 나누어 근대시기 부산의 관광지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이들 사진에 보이는 관광지들 중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락하거나 사라진 곳도 있으며, 더욱 발전한 곳도 있다. 그 중 송도해수욕장과 송도공원은 용두산 주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였으며, 동래 온천장은 온천문화가 발달한 일본인들에 의해 부산 최대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이처럼 개항기 부산 근대 관광지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 되면서, 그들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부산의 관광지가

가지는 「근대성」과 그 이면의 「식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남식 | 부산근대역사관



2018년 새해맞이 떠전시

## 집을 지키고 복을 불러오다, 개

전시기간 2018. 2. 13.(화) ~ 4. 1.(일)

전시장소 부산박물관 동래관 서로비 2층

2018년 무술년(戊戌年) 개띠해를 맞이하여『집을 지키고 복을 불러오다』란 주제로 동래관 서로비에서 테마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2007년 돼지의 해』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부산박물관 떠전시에는 그 해에 맞는 십이지 동물이 의미하는 바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개는 십이지의 11번째 동물로서 인간과 매우 가까운 친근한 짐승이다.

인류에 의해 가장 먼저 가축화되어 길리쳤으며 특유의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어오는 설화와 민담 속에서 개는 의리를 알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직한 동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부산박물관 동래관 서로비 2층에 마련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불교 조각가 청원스님의 경주 김유신 묘석 십이지를 모각한 「개 신장상」이 전시된다.

임설희 |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



허반기 전시 「백납병풍」중 젖을 먹이는 어미개



## 2017년 하반기 유물 기증

2017년 하반기에는 이여기 님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기증자가 20건 20점의 자료를 기증하였다.

먼저 이여기 님은 기증자(현 78세)의 어머님이 기증자의 결혼을 대비하여 미리 직접 만들고 준비한 베개를 비롯하여 제작연대(기증자 5세때, 1945년 무렵)를 알 수 있는 원단(무명, 모시) 등 8건 8점을 기증하였고, 정성희 님은 6.25 당시 제작된 군용〈숟가락〉 등 2건 2점을 기증하였다.

류상곤 님은 한말에 프랑스 등 유럽으로부터 들어와 사용되기 시작한 뇌관 외화식총인〈뇌홍식권총〉 1건 1점을 기증하였으며, 박방룡 님은 장경호 등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기에 이르는 토기와 근대 접시, 재봉틀 등 9건 9점을 기증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들은 대부분 근현대기의 자료들로 당시의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어 당시의 연구자료나 전시자료로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증된 유물들은 차후 전시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석범 |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베개 (이여기 기증)

연번	유물명	기증자	유물수량	기증일자
1	베개 등	이여기	8건 8점	2017. 7. 19
2	숟가락 등	정성희	2건 2점	2017. 7. 19
3	뇌홍식권총	류상곤	1건 1점	2017. 8. 10
4	장경호 등	박방룡	9건 9점	2017. 10. 28
계			20건 20점	



11. 20.(월),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244점의 유물을 기증하신 최명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물기증유공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문화재 발굴 조사

유적명 배산성지 1차 문화재 발굴조사

조사기간 2017. 4. 12.(수) ~ 12. 13.(수)

문화재조사팀은 연제구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12일부터 12월 13일 까지 배산성지 추정 복문지 일원과 지난해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집수지 2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배산성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는 배산(서봉 254m, 동봉 246m)의 두 봉우리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 산성(包谷式山城)으로 부산의 중심지가 대부분 조망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산성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에 조사된 2기의 집수지(集水址)는 모두 원형으로 3단의 계단식 호안 석축(護岸石築, 집수지 봉고 방지를 위해 쌓은 석축구조물)으로 둘러져 있다. 집수지의 구조는 기장산성, 거제 둔덕기성, 남해 대국산성, 남해 임진성 등 남해안 일원에서 7세기대 신라가 축조한 산성에서 확인되는 집수지 구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산성지에서 확인된 2기의 집수지 규모는 국내 원형집수지 중에서도 최대급에 속한다. 1호 집수지의 경우 최상부 제3단 호안석축을 기준으로 직경 9.5m, 깊이 3.2m 규모이며, 2호 집수지의 경우 직경은 13m(굴광 범위 포함 16.5m), 깊이 4.6m에 이른다. 2호 집수지의 경우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신라산성 집수지 중 최대 규모이며, 국내에서는 충북 청원 양성산성 원형집수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1호와 2호 집수지 내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그릇, 항아리 등 생활용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2호의 경우 집수지 인근의 건물이 일시에 무너진 듯 포개진 토기그릇과 함께 암·수키와 100여점이 출토되었다.



1·2호 집수지 전경

1. 2호 집수지 전경

인해성 |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

유적명 노포동고분군 일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조사기간 2017. 6. 13.(화) ~ 9. 15.(금)

문화재조사팀은 시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노포동고분군의 종합 정비 복원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학술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문화재청 허가 제 2017-529호). 노포동고분군은 부산의 대표적인 삼한·삼국시대 무덤유적으로 당시 부산 지역 고대국가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수혈 1기, 삼한시대 목관묘 1기·목곽묘 5기, 시대불명 토광묘 1기·수혈 1기 등 1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한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와질토기의 편년으로 볼 때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목곽묘는 3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역별로 유구 분포의 차이가 있으나 보호구역의 경계 주변에 걸쳐 전 구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고, 특히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의 정상부로 갈수록 유구의 밀집도가 높고, 규모가 큰 무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정된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지정된 범위 밖으로 유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포동고분군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올바른 가야사 복원에 밑거름이 되는 연구 자료가 축적되길 기대해 본다.

박정욱 |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



1. 조사구역 전경

2. 5호 목곽묘

## 부산박물관

이정은, 박자혜 | 부산박물관



### ▶▶▶ 박물관 요미조미

기간 : 2017. 9. ~ 11. (2 · 4주 금요일)  
1회 - 10:30 ~ 11:30, 2회 - 11:30 ~ 12:30  
대상 : 유치원생 단체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구연동화를 듣고 아이들이 직접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거울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은 참가 유아들 뿐 아니라 인솔 선생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 여름방학 가족박물관교실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

기간 : 2017. 8. 1. ~ 8. 10. (매주 화 · 수 · 목요일)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생 및 가족 500팀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가족박물관교실은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라는 주제로 저학년은 전시실을 둘러보며 유물 발굴의 순간을 알아보고 기록한 다음 토키를 복원하였으며, 고학년은 전시실 텁방 이후 토키를 복원한 다음 전시라벨을 적어보는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체험을 통해 많은 참가 학생 및 가족들은 박물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답하였다.

### ▶▶▶ 박물관과 함께하는 부산역사이야기 – 박물관에서 만나는 부산역사이야기 –

기간 : 2017. 9. ~ 11. (매주 화요일) 10:00 ~ 12:00  
대상 :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4학년생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4학년 교과과정 중 하나인 <부산의 생활> 중 부록에 있는 <부산의 역사>를 박물관 전시와 관련시켜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풀어낸 것으로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학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관람 및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은 일선학교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박물관과 함께하는 부산역사이야기 – 찾아가는 부산역사이야기–

기간 : 2017. 9. ~ 11. (매주 월 · 수요일) 2-3교시  
대상 :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4학년생  
장소 : 각 초등학교 교실

하반기 <찾아가는 부산역사이야기>는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학년 교과과정 중 하나인 <부산의 생활> 부록에 있는 <부산의 역사>를 박물관 전시유물을 중심으로 제작된 ppt 및 유물사진을 활용한 카드게임을 통한 수업은 평소 박물관을 방문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일선학교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토요박물관교실 <역사빙고게임>

기간 : 2017. 7. ~ 12. (4주 토요일) 13:30 ~ 15:30  
대상 : 초등학생 200여명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부산의 신석기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주제별로 퀴즈 및 메모리 카드게임, 미인드맵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완성한 빙고게임판을 활용하여 참가한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빙고게임을 해보는 역사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참가 이후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 ▶▶▶ 드림드림 박물관교실

기간 : 2017. 7. ~ 12. (2주 토요일) 10:00 ~ 12:00  
대상 : 지역아동센터 학생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2017년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란 주제로 참가 아이들이 직접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단서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통해 박물관 전시유물을 관람하고, 깨진 토키를 복원해 보는 활동은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었다.

### ▶▶▶ 토요야간프로그램 <호기심유물상자>

기간 : 2017. 9. ~ 11. (2 · 4주 토요일) 16:00 ~ 18:30  
대상 : 초등학생 및 가족 100여팀  
장소 : 부산박물관 전시실

2017년 7월 재개관한 부산관을 대표하는 유물을 20점 선정하여 유물에 대한 호기심상자를 만들어 가족이 함께 퀴즈를 풀면서 부산관을 체험하는 야간프로그램이다. <호기심유물상자>는 단조로운 전시관람보다 가족들이 유물을 색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 ▶▶▶ 조용한 수다 <박물관 속 숨은동물찾기>

일시 : 2017. 11. 8.(수) ~ 9.(목) 10:00 ~ 15:00  
대상 : 배화학교 초 · 중 · 고등부 68명  
장소 : 배화학교



부산박물관 소외계층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아의 특성 및 교과과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박물관 속 동물을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게임형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배화학교 학생들은 정각 및 지적 장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유물 속 동물들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청소년 진로교육

기간 : 2017. 9. ~ 12. (기간 중 협의)  
대상 : 중학교 진로동아리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2017년도 청소년 진로교육은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의 업무소개와 함께 훈련된 복제토끼를 복원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하여 박물관 학예연구사에 대한 직업관심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 역사 및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 청년희망아카데미 조선통신사 클래스

일시 : 2017. 12. 11.(월), 18.(월) – 통신사 강의  
2017. 12. 20.(수) – 대마도 답사  
대상 : 부산시민 누구나(선착순 50명)  
장소 : 부산박물관 소강당



2017년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란 주제로 참가 아이들이 직접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단서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통해 박물관 전시유물을 관람하고, 깨진 토키를 복원해 보는 활동은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정	강의내용	강연자
12.11.(월) 14:00~15:30	조선통신사 여정, 영상콘텐츠로 재탄생 되다	최용수 (KBS 부산방송총국 PD)
12.11.(월) 16:00~17:30	조선통신사 경제학적 관점 이해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클라스팅학과)
12.18.(월) 14:00~15:30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지정 과정과 의미 이해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문화분부부장)
12.18.(월) 16:00~17:30	조선통신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연구된 발자취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20.(수) 12.27.(수)	옛길을 따라 걷는 조선통신사 발자취 – 대마도 답사	인솔자 – 이정은 (부산박물관 교육홍보팀)

### ▶▶▶ 중학생 창의체험프로그램 <부산박물관 역사원정대>

기간 : 2017. 9. ~ 11. (기간 중 협의, 총 5회) 14:00 ~ 16:00  
대상 : 동의중학교 120명, 오륙도중학교 30명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중학교 동아리활동과 연계, 평소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우리동네 역사이야기”는 접수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역사를 알려주고 박물관 전시유물과 연계하여 배워볼 수 있는 체험이며 “부산과 일본”은 부산관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산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역사 를 배우고 생각나무를 만들어보는 체험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로 2018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 워너비 큐레이터

일시 : 1기 – 2017. 11.11.(금) 9:30 ~ 15:30  
2기 – 2017. 11.18.(금) 9:30 ~ 15:30  
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 40명  
장소 : 부산박물관 교육실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학예연구사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와 진행하는 수업이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너비큐레이터는 학예연구사 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학예업무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제 33기 역사문화강좌 <역사, 대중문화를 만나다>

기간 : 2017. 8. 29.(화) ~ 9. 1.(금) 13:30 ~ 17:00  
대상 : 일반시민 300명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역사, 대중문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역사문화강좌는 대중문화속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올바른 시각으로 다시 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주몽, 선덕여왕을 비롯하여 기황후, 사도세자 등 대중문화 속에서 표현된 역사적 인물과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역사문화강좌는 우리 역사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강좌란 점에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제17기 박물관대학 <박물관의 탄생>

기간 : 2017. 9. 28. ~ 11. 9. (매주 목요일) 13:30 ~ 17:00  
대상 : 성인 200여명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진행된 12강좌의 프로그램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의 주제 및 내용으로 인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향후 포괄적이고 세계사적인 주제로 강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설문결과가 있었다.

### ▶▶▶ (사) 부산박물관회 공동개최 추계시민강좌 <정신분석학과 미술-다빈치와 샤갈>

일시 : 2017. 10. 18.(수) 13:30 ~ 15:30  
대상 : 부산박물관회 회원 및 일반시민 150여명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사)부산박물관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 시민문화강좌로 김종기 부산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정신분석학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미술사의 흐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 서양미술의 그림읽기 강좌였다고 평가된다.

### ▶▶▶ 전문인력답사

기간 : 2017. 10. 30.(월) ~ 10. 31.(화)  
대상 : 박물관 자원봉사자 40명  
장소 : 1일차 - 화성 용주사 → 수원화성  
2일차 - 용인 호암미술관 → 세종대왕 유적지구



### ▶▶▶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

기간 : 2017. 10. 3.(화) ~ 10. 6.(목)  
대상 : 평절 박물관 관람객  
장소 : 부산박물관 야외마당

긴 연휴를 맞이하여 이번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은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투호, 웃돌이, 굴렁쇠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이유리 선생님의 민속춤 공연, <소원을 품은 달>을 주제로 진행된 거울만들기 및 소원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거울만들기 행사는 자신의 개성대로 만들어 갈 수 있어 참가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일시 : 2017. 10. 21.(토) 13:00 ~ 18:00  
대상 : 초등학생 및 가족 1,360여명  
장소 : 부산박물관 야외마당



부산광역시 박물관협의회 소속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부산박물관 앞 마당에서 진행된 박물관 대표 야외행사이다. ‘부산을 밝혀라, 유물 램프’, ‘선사인 사냥게임’, ‘근대 에코백 만들기’ 등 각 박물관을 대표하는 체험행사를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부산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였다.

### ▶▶▶ 문화가 있는날

기간 : 2017. 7. ~ 12. (마지막 주 수요일)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또는 야외마당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수영야류, 도자기 장고공연, 현악 4중주, 전통연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연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악기를 만져보거나 공연에 참여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월	행사내용
1월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약4중주
2월	마린뮤즈콰이어 합창 공연
3월	마술공연(매직&그림자쇼)
4월	좌수영어방놀이
5월	앉은반 사물놀이, 선반 설치구, 판굿
6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공연
7월	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8월	부산시립무용단-드라마음악과 함께 떠나는 춤 여행
9월	조종훈의 고금고-도자기 장고
10월	부산예술단 전통연희 Go!Go!Go!(즐겁고 재밌고 신명나고!)
11월	부산시립청소년관현악단 협약4중주
12월	부산예술단 전통연희(북춤 및 사물놀이, 경기민요)

### ▶▶▶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

장경준 |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

기간 : 2017. 6. ~ 12. (마지막 주 수요일)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부산박물관 전시실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맞춰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는 박물관 큐레이터 (학예연구사)가 전시실에서

시민들과 만나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는 12명의 큐레이터가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는 동물, 닭’, ‘고대국가의 태동’, ‘삼국시대 농사와 농사꾼’, ‘부산 지역 토기 해부학’, ‘고대 청동 거울과 갑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등 12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다. 2018년에도 우리 큐레이터들은 보다 일찬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얹힌 숨겨진 사연들을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다.

### ▶▶▶ 배산성지 1차 문화재 발굴조사 시민 현장설명회

안해성 |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

일시 : 2017. 11. 27.(월)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연제구 연산동 배산성지 발굴조사 현장 일원



문화재조사팀과 연제구청은 배산성지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11월 27일(월) 오전 10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자들이 배산성지 조사 현장을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였다. 유구와 유물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시민들은 안내 중에도 수시로 질의를 하는 등 부산의 새로운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복천박물관

백선영 | 복천박물관



### ▶▶▶ 제10기 고고학시민강좌

기간 : 2017. 5. ~ 7. (마지막 목요일) 13:30 ~ 16:30  
대상 : 일반시민 100여명  
장소 : 복천박물관 1층 강의실



제10기 고고학 시민강좌가 <극동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란 주제로 5. 11.(목) ~ 7. 6.(목)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총 9회 진행되었다. 제 1강 ‘선사시대 극동인의 예술과 한반도’를 시작으로 ‘옥저와 읍루인 이야기’, ‘발해와 연해주’, ‘연해주지역의 근현대’ 등 총 9개의 개별주제 강의로 극동 아시아지역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살펴보았다. 전체 강좌에 총 108명이 참석하였다.

### ▶▶▶ 여름방학 어린이 박물관 교실

기간 : 2017. 8. 16.(수) ~ 8. 18.(금)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생  
장소 : 복천박물관 강의실 및 전시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8. 16.(수) ~ 8. 18.(금)까지 1일 2회 총 6회 진행되었다. 가야시대 ‘금동관’, ‘투구’, ‘갑옷’을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큰 호응을 보였다. 총 233명이 참여하였다.

### ▶▶▶ 추계 가야유물 만들기 체험

기간 : 2017. 11. 18.(토) ~ 12. 2.(토)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생  
장소 : 복천박물관 강의실 및 전시실



### ▶▶▶ 길에서 옛 동래를 만나다

기간 : 1차 - 2017. 10. 14.(토) 10:00 ~ 13:00  
2차 - 2017. 10. 28.(토) 10:00 ~ 13:00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생 및 중학생  
코스 : 복천동고분군 → 동래읍성지 → 동래향교 ⇒ 송공단 ⇒ 동래부동헌 → 임진왜란역사관



<옛길에서 동래를 만나다> 주제로 한 기을 답사프로그램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10. 14.(토), 28.(토), 총 2회 실시되었다. 복천박물관을 시작으로 동래읍성지, 동래향교, 송공단, 동래부동헌, 그리고 수안역사에 자리 잡은 임진왜란 역사관까지 일행이 함께 걸으며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다. 동반 학부모까지 총 25명 참여하였다.

### ▶▶▶ 토요문화프로그램

일시 : 2017. 12. 9.(토) 14:00 ~ 15:30  
대상 : 일반시민 100여명  
장소 : 복천박물관 1층 로비  
하반기 토요문화프로그램행사는 12. 9.(토)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이안 양상불의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오カリ나 연주가 함께한 공연에서는 귀에 익숙한 클래식과 팝음악이 연주되었으며,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캐롤도 들을 수 있었다. 가족과 연인 등 100여명의 관람자들은 고즈넉한 박물관에서 색다른 공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 ▶▶▶ 문화가 있는 날 우리문화재 만들기 개최

기간 : 2017. 7. ~ 12. (마지막주 수요일)  
1회 - 16:30 ~ 18:00, 2회 - 18:30 ~ 20:00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생  
장소 : 복천박물관 1층 로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우리문화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7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장군총', '살수대첩', '무령왕릉', '백제 금제관식', '미륵사지', '정림사지' 등 만들기를 진행, 총 250여명이 참여하였다.

### ▶▶▶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

일시 : 2017. 12. 21.(목)  
대상 : 부산동암학교 학생  
장소 : 부산동암학교  
사회배려자 대상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특수학교 부산 동암학교를 찾아갔다. 총 학급 6개 반 50여명의 학생들에게 복천박물관 소개와 함께 가야의 금동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 정관박물관

송영진 | 정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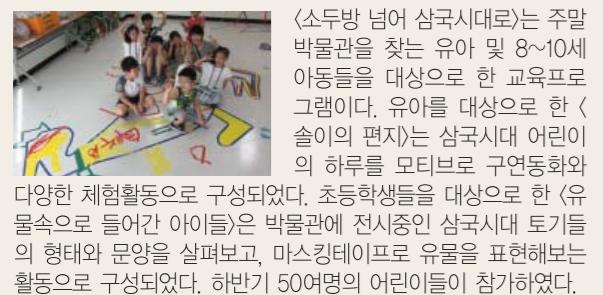
### ▶▶▶ 올망졸망 박물관

기간 : 2017. 3. ~ 12. (매주 화~금요일, 상시운영) 10:30 ~ 11:30  
대상 : 6~7세 유아단체  
장소 : 정관박물관 교육실  
<올망졸망 박물관>은 6~7세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7년에는 새모양토끼를 모티브로 한 구연동화 및 틀린그림찾기, 치렁타겟, 새모양토끼 꾸미기 등으로 구성되어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어 냈다. 하반기 53개 기관 1,283명의 유아들이 참여하여, 총 90개 기관 2,140명이 참가하였다.



### ▶▶▶ 소두방 넘어 삼국시대로

기간 : 2017. 4. ~ 12. (2·4주 토요일)  
1회 - 10:00, 2회 - 15:00  
대상 : 유아 및 초등학교 1~3학년생  
장소 : 정관박물관 교육실



<소두방 넘어 삼국시대로>는 주말 박물관을 찾는 유아 및 8~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솔이의 편지>는 삼국시대 어린이의 하루를 모티브로 구연동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물속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박물관에 전시중인 삼국시대 토기들의 형태와 문양을 살펴보고, 마스킹테이프로 유물을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하반기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 ▶▶▶ 고고역사클래스

기간 : 2017. 9. 7. ~ 9. 28. (매주 목요일) 13:30 ~ 16:30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정관박물관 강당



박물관의 사회교육 역할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고고역사 강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기 고고역사클래스가 개최되었다. <고고학자가 들려주는 발굴이야기>를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고학의 숨겨진 둑이야기들과 다양한 발굴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 ▶▶▶ 전통놀이 한마당

기간 : 2017. 10. 1(일) ~ 2017. 10. 9(월) 10:00 ~ 17:00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정관박물관 로비 및 야외마당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놀이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투호, 팽이놀이, 윷놀이, 자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기·딱지만들기 체험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 문화가 있는 날

기간 : 2017. 7. ~ 12. (마지막주 수요일)  
대상 : 일반시민  
장소 : 정관박물관 로비 및 야외마당

문화융성을 위한 박물관 대시민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개최하였다. 정관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인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하여 영화상영, 특별초청강연회, 아빠와 함께하는 입체퍼즐·유물 컬러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20시까지 전시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 부산근대역사관

이남식 | 부산근대역사관



### ▶▶▶ 2017년 여름방학 근대역사 클래스

기간 : 2017. 8. 8.(화) ~ 8. 10.(목)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 및 학부모  
장소 :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초등학생들의 근대 역사 체험과 방학기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근대역사 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특별전과 연계한 내용의 미션을 팀별로 수행하며 정답을 찾아보고, 전시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산의 근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 근대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 '근대역사 시간여행'

일시 : 2017. 10. 15.(일), 22(일), 29(일) 09:30 ~ 12:30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및 가족  
코스 : 근대역사관 → 한국은행 부산본부 → 백산기념관 → 청자빌딩 → 관수구 터 → 용두산 공원(초량왜관) → 부산요 터 → 영도다리



초등학생들에게 근대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대역사 시간여행'을 진행하였다. 중구 일대에 자리했던 조선시대 초량왜관 터를 찾아보고 근대 경제의 중심지였던 운행거리를 답사하는 코스로 근대 상업의 중심 도시 부산의 원형과 변화된 시기지의 역사 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 교실에서 만나는 근대 역사 체험

기간 : 2017. 11. 13. ~ 12. 8. (기간 중 휴일, 총 30회)  
대상 : 개원초등학교 등 7개 학교, 30학급 700여명 참여  
장소 : 각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각 학급 단위별로 부산의 근대사에 관한 강의와 태극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태극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태극 문양의 기원과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 역사 속 태극기의 다양한 모습 등을 시청각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 종이를 접어 태극기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임시수도기념관

위순선 임소연 | 임시수도기념관(시민공원역사관)



### ▶▶▶ 2017년 하반기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 "종이폭탄, 빠라를 찾아라!"

일시 : 1차 - 2017. 9. 16. ~ 10. 01. (매주 토·일요일) 15:00~17:00  
2차 - 2017. 10. 13. ~ 11. 19. (매주 일요일)  
1회 - 11:00~12:00, 2회 - 14:00~16:00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장소 : 임시수도기념관 뒷뜰



피란학교 천막교실을 재현하여 한국전쟁 및 임시수도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올 하반기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종이폭탄, 빠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들이 빠라 찾기 미션, 평화의 빠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전쟁기 심리전의 주요매체인 빠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평화의 참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총 14회 진행, 224명이 참가하였다.

### ▶▶▶ 시민공원역사관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

기간 : 2017. 9. 16. ~ 11. 12. (매주 토·일요일)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장소 : 시민공원역사관 및 부산시민공원



100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 한 범전동 일대 시민공원 부지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현장 투어에서는 시민공원의 역사유적을 직접 둘러보고 전문강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학습한 내용은 시민공원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였다.

### 동삼동패총전시관

최지호 | 동삼동패총전시관



### ▶▶▶ 여름방학 신석기문화 체험학습

기간 : 2017. 8. (매주 금요일)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및 가족  
장소 : 동삼동패총전시관 전시실 및 야외무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단위 체험학습 프로그램 <여름방학 신석기문화 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동삼동패총 유적과 신석기문화를 주제로 한 강의에 이어, 신석기시대 유물문양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부산 지역 거주 학생을 비롯하여 방학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초등학생과 가족 등 140여명이 참가하였다. 시원한 바닷가에서 진행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역사공부와 더불어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 하반기 신석기문화 체험학습

기간 : 2017. 9. 16.(토), 9. 30.(토), 10. 14.(토), 10. 28.(토)  
1회 - 10:00 ~ 12:00, 2회 - 14:00 ~ 16:00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및 가족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체  
장소 : 동삼동패총전시관 전시실 및 야외무대



초등 및 중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내 고장알기의 일환으로 <신석기문화 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오전 수업은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오후 수업은 개인(가족 동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9월 16일과 10월 14일은 빗살무늬토기 만들기, 9월 30일과 10월 28일에는 동삼동패총 토총액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가족 190여 명이 참가하였다. 상세한 전시해설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동삼동패총 유적과 신석기시대 문화를 알아보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 박물관 교류

### 부산시 – 후쿠오카시 문화재 담당자 교류



부산시와 후쿠오카시(福岡市) 양 도시의 문화재 담당자간 교류를 통해 한·일 문화 교류 활성화와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교류 사업이다.

2016년 후쿠오카시(福岡市) 직원들이 우리 박물관으로 방문한데 이어 2017년에는 우리쪽 이남식, 강석범 학예연구사가 후쿠오카시(福岡市)를 방문하였다. 이번 후쿠오카시(福岡市) 방문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양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박물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정민 | 부산박물관 교육홍보팀

### 부산박물관 – 일본 국학원대학 대학원 공동연구 교류사업



박물관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 협의 및 일본 박물관 전시 시설 조사를 위하여 일본 국학원 대학교 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 2017년에는 최정혜 학예연구관(부산근대 역사관)이 국학원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최정혜 학예연구관(부산근대역사관장)은 부산관 리모델링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 하였으며, 일본의 국·공립박물관들의 전시·교육 운영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동경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교류사업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들은 향후 우리 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손정민 | 부산박물관 교육홍보팀

### 동아시아 고고학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동아시아 고고학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조사·연구와 그 성과에 대한 '동아시아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9월, 10월 양국에서 각각 1차, 2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부산박물관에서는 열린 1차 학술 대회에서는 문화재조사팀 박정욱 학예연구사가 <야요이계토기의 출토양상과 지역별 특징>, 나가사키현 매장문화재센터 측에서는 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가 <야요이 시대 토기로 본 한일교류>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린 2차 학술대회에서는 문화재조사팀 박정욱 학예연구사가 <철을 구하려 바다를 건너다 – 야요이시대 철 이야기>, 나가사키현 매장문화재센터 측에서는 야마나시 치아키(山梨千晶)가 <이끼의 야요이시대 철>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정욱 |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

## 박물관 동정

### 부산근대역사관 이남식 학예연구사

상명 부산박물관 발전 유공 시장표창  
수상날짜 2017. 12. 22.  
수상내역 부산시장 표창

### 복천박물관 김동윤 학예연구사

상명 2017년 박물관 발전 유공 표창(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날짜 2018. 1. 8.  
수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동삼동파총전시관) 정수희 학예연구사

상명 2017년 출토유물 보관관리 우수·유공자(기관) 포상  
수상날짜 2017. 12. 29.  
수상내역 문화재청장 표창

구 분	행사 명	기 간	장 소	대 상	주요내용
부산 박물관 교육 행사	신수유물 소개전	1월~12월 중 3회	부산박물관(미술실)	시민	조선통신사 자료 및 신수유물 소개
	띠 전시 [집을 지키고 복을 불러오다, 개_]	2.13. ~ 4.1.	부산박물관(서로비)	시민	목제부조상 및 패널 등
	겨울 가족박물관교실	1.9. ~ 1.18. (기간 중 화, 수, 목)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초등학생 가족 600팀	겨울/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박물관 체험학습
	토요야간프로그램	3월 ~ 6월 (1·3주 토요일)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초등학생 가족 회당 15팀	야간개장에 즐겨보는 토요일 가족프로그램
	토요박물관 교실	3월 ~ 6월 (4주 토요일)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초등학생 가족 300팀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박물관 체험학습
	드림드림 박물관 교실	3월 ~ 6월 (2주 토요일)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지역아동센터(단체)	역사관련 주제강의, 전시실관람, 만들기 체험 등
	박물관에서 만나는 역사이야기	3월 ~ 6월 (매주 월, 화, 수)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초등단체	연계 교육청 산하 초등 4년을 위한 부산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학습
	상·하반기	4월 ~ 6월 (2주 금)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유아단체(각 30명)	전시실 유물을 살펴보며 진행되는 구연동화 및 체험교육 진행
	청소년 진로교육	3월 ~ 6월 (연중 상시)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중·고등학생	학예연구사 등 박물관 종사자에 대한 진로교육 및 전시실 관람으로 구성
	청소년 창의체험교육	3월 ~ 6월 (월 1회)	부산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중학생	중학교 역사동아리학생들 대상으로 박물관 창의체험활동 제공
복천 박물관 교육 행사	박물관투어	3월 ~ 6월 (셋째주 일요일)	부산박물관 및 소속박물관	시민 400명	유엔평화문화특구 및 부산박물관 소속박물관 관람
	교육강사 연간교육	상, 하반기 각 2회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교육강사	교육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학 전문강의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	1월 ~ 6월 마지막주 수요일	부산박물관	시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큐레이터 전시 설명
	문화가 있는 날	1월 ~ 6월	부산박물관	시민 1500명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되는 박물관 문화행사 및 교육
	문화재그리기대회 및 수상작 전시	4월 ~ 5월 중	부산박물관(전시실, 야외)	초등학생 500명	초등학생 대상 박물관 문화재 그리기대회 및 수상작품 전시회
	국내전시교류전 「영화의 선사시대」	5월 ~ 7월	복천박물관(기획전시실)	시민	선사시대 동굴그림에서 영화의 기원을 찾는 전시
정관 박물관 교육 행사	겨울방학 어린이 박물관 교실	1. 24. ~ 1. 26.	복천박물관 (강의실, 전시실)	초등 1~6학년 240명(총6회)	가야 유물 만들기 체험
	토요문화프로그램 <박물관 작은음악회>	3월 ~ 6월 연중 2회	복천박물관	일반시민 100여명	음악회 등 토요일 문화공연 프로그램
	춘계 가야유물 만들기 교실	4월 중	복천박물관 (강의실, 전시실)	초등 1~6학년	가야 유물 만들기 체험
	고고학 시민강좌	5월 ~ 7월 (매주 화요일)	복천박물관 (강의실)	시민 100여명	'장신과 의례' 주제관련 문화 강의
	새해 소망 연 날리기 행사	1월 / 2월 중 각 1회 총 2회	복천박물관 (강의실, 고분군)	어린이, 초등생 40팀	설맞이, 정월대보름맞이 연 만들기 및 날리기 행사
정관 박물관 교육 행사	어린이 특별기획전 「나무를 만나다」	5.1. ~ 10. 28.	정관박물관(기획전시실)	어린이 동반가족	나무의 생태적 내용 및 활용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전시
	우리가족 박물관 나들이 (유아·초등)	1.10. ~ 1.19. (수, 목, 금)	정관박물관 강당	유아·초등 가족	겨울방학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율망줄망 박물관	3월 ~ 6월 (화, 수, 목, 금)	정관박물관 교육실	6~7세 유아단체	삼국시대 유물 관련 체험활동
	소두방 넘어 삼국시대로 (유아·초등)	3월 ~ 7월 (매월 2주 주 토)	정관박물관 교육실	유아·초등	삼국시대 의식주 관련 수준별 체험활동
	꿈꾸는 박물관	상반기	정관박물관 강당	사회적배려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전시관람 및 만들기 체험
	네 꿈을 펼쳐라	연중	정관박물관 강당	중학생	학예연구사 진로교육
	민속절기 프로그램	입춘, 대보름, 단오	정관박물관 로비	관람객	입춘첩 나누기, 부럼깨물기, 단오부채만들기 등 체험행사 개최
	전통놀이 한마당	설	정관박물관 앞마당	시민	투호, 윷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자유체험
부산 근대 역사관 교육 행사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관박물관 내외	시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겨울방학 근대역사 클래스	1. 18. ~ 1. 20.	근대역사관 전시실	초등학생 4~6학년	상설전시 설명·근대건축물 영도다리 모형 만들기
	함께 떠나는 근대문화 유적 답사	4월 ~ 5월	중, 서구	초등학생, 학부모	중서구 지역 근대유적답사
	찾아가는 근대역사학교	4월 ~ 5월	각급 학교	초등학생 4~6학년	근대역사강의·주제별 만들기 체험
임시수도 기념관 시민공원 역사관 교육 행사	《문화가 있는 날》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근대역사기행	1월 ~ 6월	근대역사관	신청인 누구나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되는 근대역사 해설
	사진으로 보는 근대풍경	1월 ~ 5월	시민공원역사관 (기억의 공간)	시민	근대 풍속 사진전시
	한국전쟁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	4월 ~ 5월	임시수도기념관 (전시실, 야외정원)	초등학생	전시관람 및 체험학습
동삼동 폐총 전시관 교육 행사	시민공원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	4월 ~ 5월	시민공원역사관	초등학생	시민공원 역사유적 투어 및 체험학습
	신석기문화 체험학습	5월 ~ 6월	동삼동 폐총전시관	초등학생 및 가족, 초·중등 특별활동반	전시관람 및 체험학습

\*상기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